

양날의 검, 캘리포니아주 'Proposition 65'

LA지사

캘리포니아주 Proposition 65

- 캘리포니아주의 유해성분 표시법 '프로포지션 65(Proposition 65, 이하 Prop 65)'의 새로운 규정이 지난 8월 30일을 기점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Prop 65는 1986년 캘리포니아주 주민투표에서 통과돼 제정된 규제로, 소비자들에게 암이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 노출에 대해 강제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캘리포니아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온라인 포함)는 모두 해당된다.
- 새 규정은 발암 유발, 선천적 장애, 기타 생식기능 손상 등의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소비재와 식품에 대한 '확실하고 적절한' 경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경고문에는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적용된다.



글자크기

- 제품 패키지에 적혀있는 글자 크기와 비슷해야 하며, 6포인트 이상이어야 함

경고심볼

- 노란색 정삼각형 안에 느낌표가 있는 경고 심볼을 사용해야 함 (⚠)
- 흑백 프린트도 가능하며, 경고문구 왼쪽에 적어야 함

Warning

- 심볼과 비슷한 사이즈로, 대문자 WARNING이란 단어를 같이 병기해야 함

경고문구

- Proposition 65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최소 1개를 기재해야 함

* 경고문구 예시 아래 참조

기존 경고문

WARNING: This product contains chemicals known to the State of California to cause birth defects or other reproductive harm

새 경고문

⚠ WARNING: Consuming this product can expose you to chemicals including [name of BPA or other listed chemicals], which is [are] known to the State of California to cause birth defects or other reproductive harm. For more information go to [P65Warnings.ca.gov/food](https://www.p65warnings.ca.gov/food)

영어 이외의 언어

- 제품 패키지, 라벨 또는 선반 태그에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소비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영어 이외의 해당 언어로도 경고문구가 제공되어야 함

- 미국 내 한국산 김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Prop 65의 허용기준치는 70세까지 평생 꾸준히 취식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영향을 주는 것은 이보다 훨씬 낮지만, 미국에서 건강식으로 인식되는 김 제품에 경고 문구를 삽입하는 것 자체가 제품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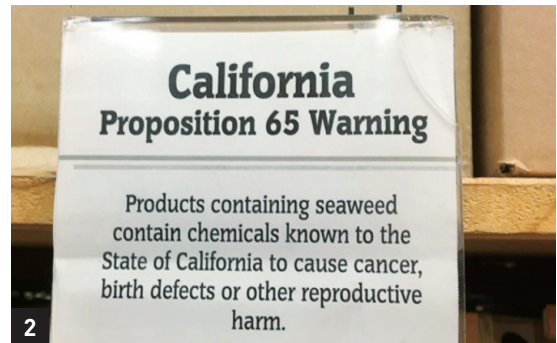
Prop 65의 표적이 되고 있는 한국산 김

-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이 법은 '포상금 사냥꾼' 또는 '시민소송' 규정을 갖고 있어, 실제 피해사례가 없어도 일반시민이나 로펌이 회사들에게 경고 의무 위반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위반한 회사가 내는 벌금의 25%뿐 아니라 변호 및 관련비용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미국시장에서 건강식품으로 주목받으며 수출효자상품으로 떠오른 '김'은 Prop 65 소송의 새로운 표적이 되었다. 김의 납(lead) 성분이 문제가 된 것인데, 상당수의 한국 회사들이 경고 의무위반 통지를 받았고, 소송비용의 부담 때문에 로펌에 합의금을 지불하며 한국산 김 제품에 경고 문구를 넣고 있다.

WARNING: This product contains lead, a chemical known to the State of California to cause cancer and birth defects or other reproductive harm.

(경고 : 이 제품에는 납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캘리포니아주 규정에 따르면 암, 기형아 출산을 유발하며 다른 생식 관련 유해를 끼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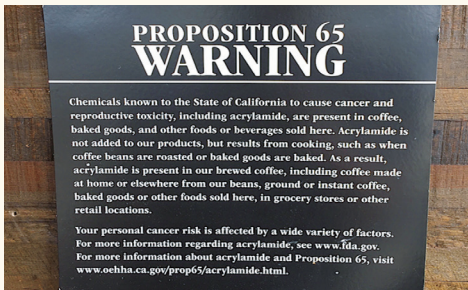
- 제품에 들어가는 경고문을 액면 그대로 본다면 김은 아이들과 임산부들이 절대 섭취해서는 안될 제품으로 여겨질 수 있다.



1. 캘리포니아주 마켓에 부착된 경고문구
2. 김 제품에 부착된 경고문구

① 커피업계

- 지난 3월 캘리포니아주 LA 고등법원에서는 커피 업계에 큰 충격을 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해당 주에서 판매하는 모든 커피에 암 유발 경고문을 표시해야 한다는 것인데, 커피원두를 로스팅할 때 나오는 '아크릴아미드'가 문제가 되었다. 커피업계는 커피의 유익함이 발암물질 위험보다 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하지만 지난 6월, 캘리포니아 주정부 보건당국(OEHHA California 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은 과학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이 판결을 철회했다. OEHHA는 광범위한 과학적 증거로 볼 때 암 발생 위험률이 높지 않고 오히려 몇 종류 암의 발병률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스타벅스 내 경고문구

② 시리얼업계

- 시리얼은 암 유발물질 중 하나인 '아크릴아미드'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Prop 65의 표적이 됐다. 그러나 지난 7월 LA 항소법원은 시리얼 업계의 손을 들어주었다. 시리얼에는 통곡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건강에 대한 특이 더 크다는 시리얼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 또한, Prop 65 경고를 포장에 넣을 경우 암 유발 위험에 대한 고지보다 소비자들의 건강한 식품 소비를 저해하는 피해가 더 크다는 이유도 포함됐다.



Prop 65 표기에서 제외된 시리얼

Prop 65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

- Prop 65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올바른 선택을 위해 제정된 규제이지만, '포상금'을 노린 악덕 소송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8월 30일부터 새 규정이 시행되는 만큼 변경사항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또 다른 피해 사례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현재 한국식품의 경우 김의 납 성분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Prop 65에 등록된 유해물질이 약 900개에 달하는 만큼, 캘리포니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식품업체의 경우 해당 규정을 숙지하고 법적 책임을 줄일 수 있는 여러 방법 및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출처 : California OEHHA Prop 65(oehha.ca.gov)

SFgate 「Coffee doesn't need cancer warning, California health agency says,」(18. 6. 16)

San Francisco Chronicle 「Breakfast cereals don't need cancer warnings, California court rules,」(18. 7. 17)

Franklin Avenue, Beyond Creek